경영학도가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노 젓는 법만 배우시겠습니까?

1학년이 꼭 알아야 할 '비즈니스의 문법'과 '시장의 조류'



NotebookLM



경영 (Management)

= 기술 (Technique)

Pretendard



경제 (Economics)

= 환경 (Market)

Pretendard

경영학이 '어떻게 배를 잘 저을 것인가'를 가르친다면,
경제학은 '지금 바다의 조류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조류를 읽지 못하는 사공은 아무리 노를 잘 저어도 목적지에 닿을 수 없습니다.

NotebookLM

경제학원론이 경영학도에게 주는 3가지 선물



1. 방향 설정 (Direction)

조류(시장)를 알아야
나아갈 방향을 정합니다.



2. 진짜 효율성 (True Efficiency)

회계 장부 너머의
숨겨진 비용을 계산합니다.



3. 생태계 이해 (Ecosystem)

나와 경쟁자, 소비자가
얽힌 판을 읽습니다.

NotebookLM

Pillar 1. 지금 바다는 어디로 흐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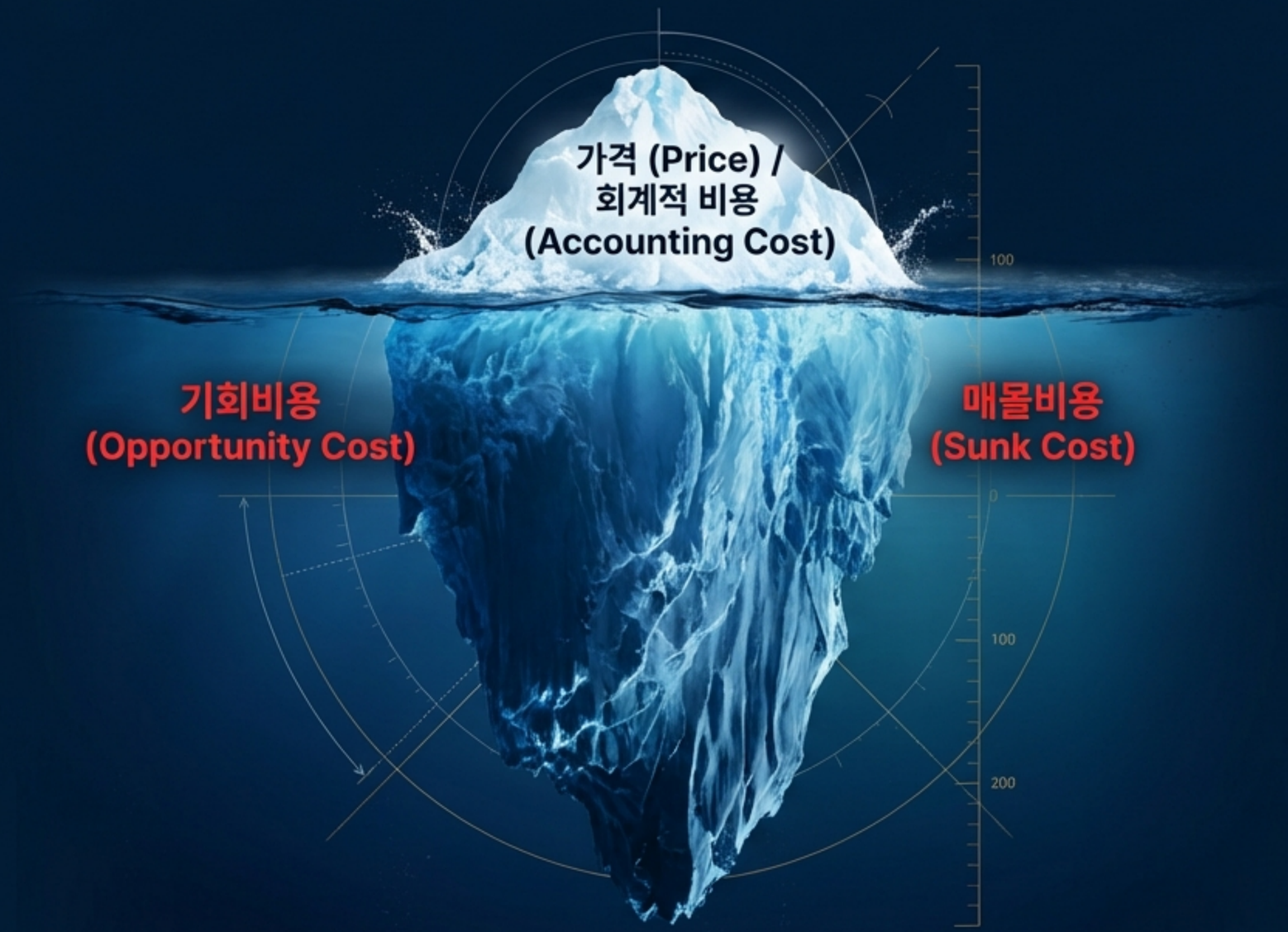
기업은 금리, 환율, 물가 등 통제할 수 없는 거시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Why it matters: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통화·재정 정책을 이해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와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Global Context:
환율 변동이 수출입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면 글로벌 경영은 불가능합니다.

NotebookLM

Pillar 2.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인가?



경영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비용: 단순히 장부상의 비용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포기한 '가장 가치 있는 대안'까지 계산합니다.

매몰비용: '이미 쓴 돈'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미래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래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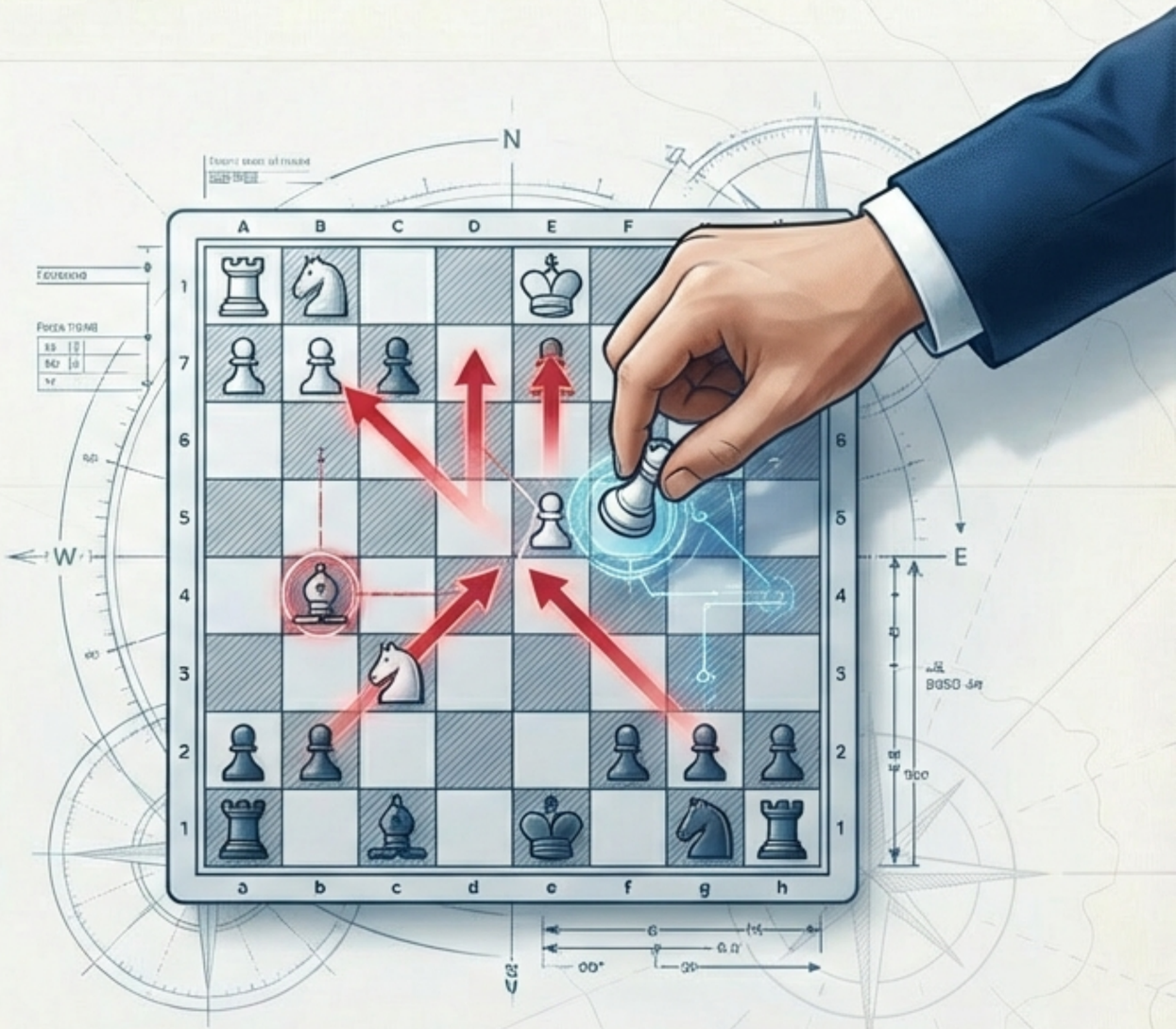
NotebookLM

Pillar 3. 경쟁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기업은 진공 상태가 아닌 치열한
생태계(Market) 속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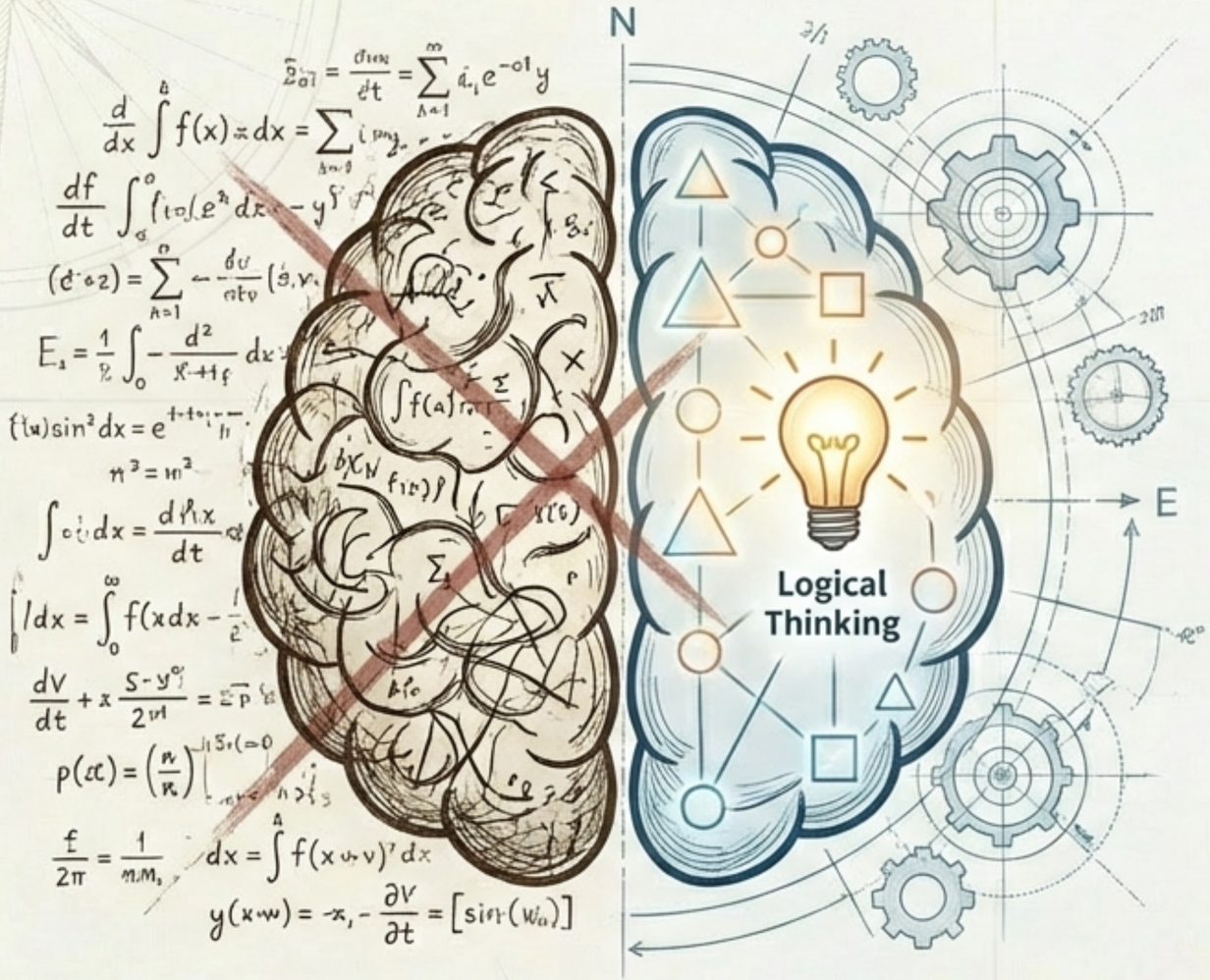
게임 이론 (Game Theory):
나의 최선이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Application:
가격 전쟁, 시장 진입 장벽 구축,
전략적 제휴 등 경쟁사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의 기초입니다.



NotebookLM

수학이 아닙니다.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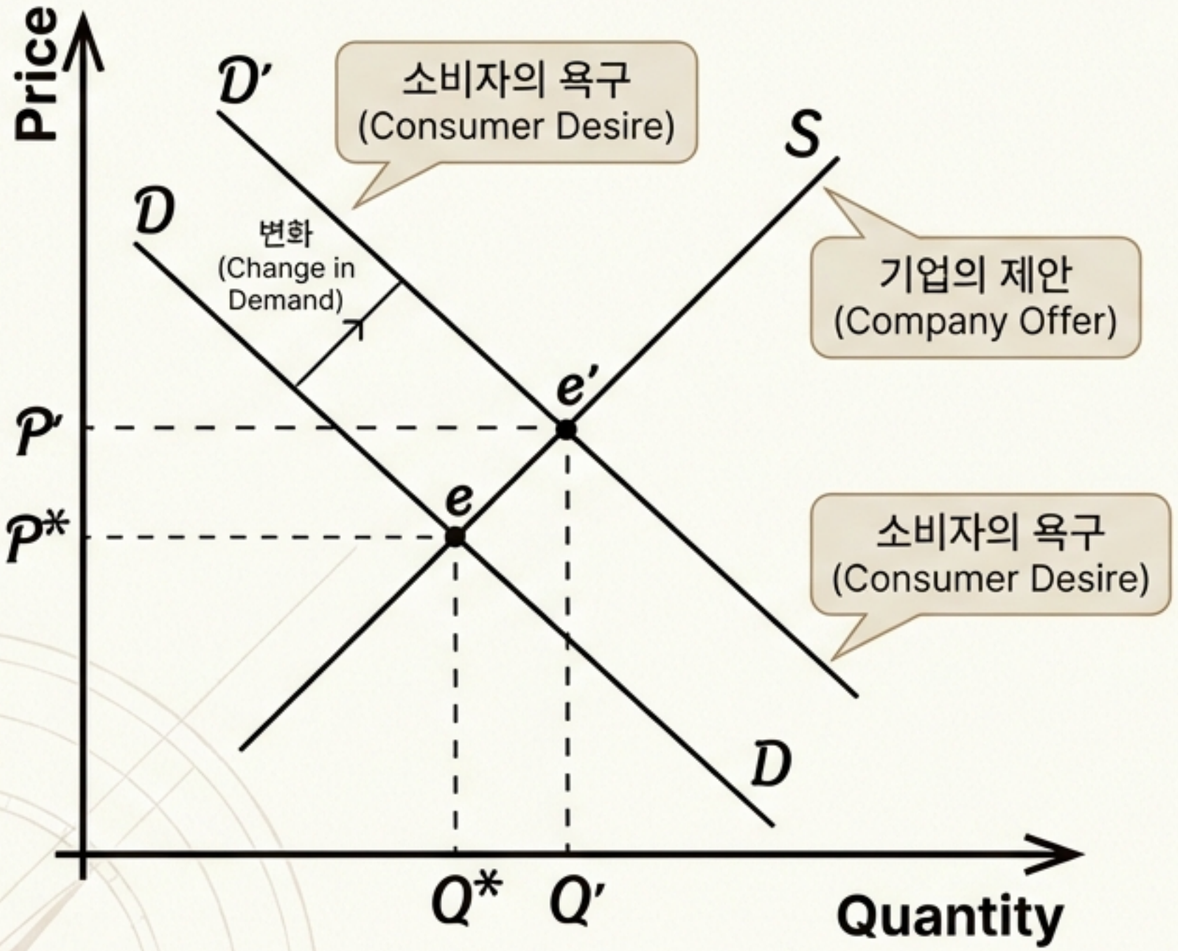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잡한 수식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원론의 핵심은 계산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사고 훈련 (Thinking like an Economist)’** 과정입니다.

NotebookLM

Nautical Editorial

그래프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지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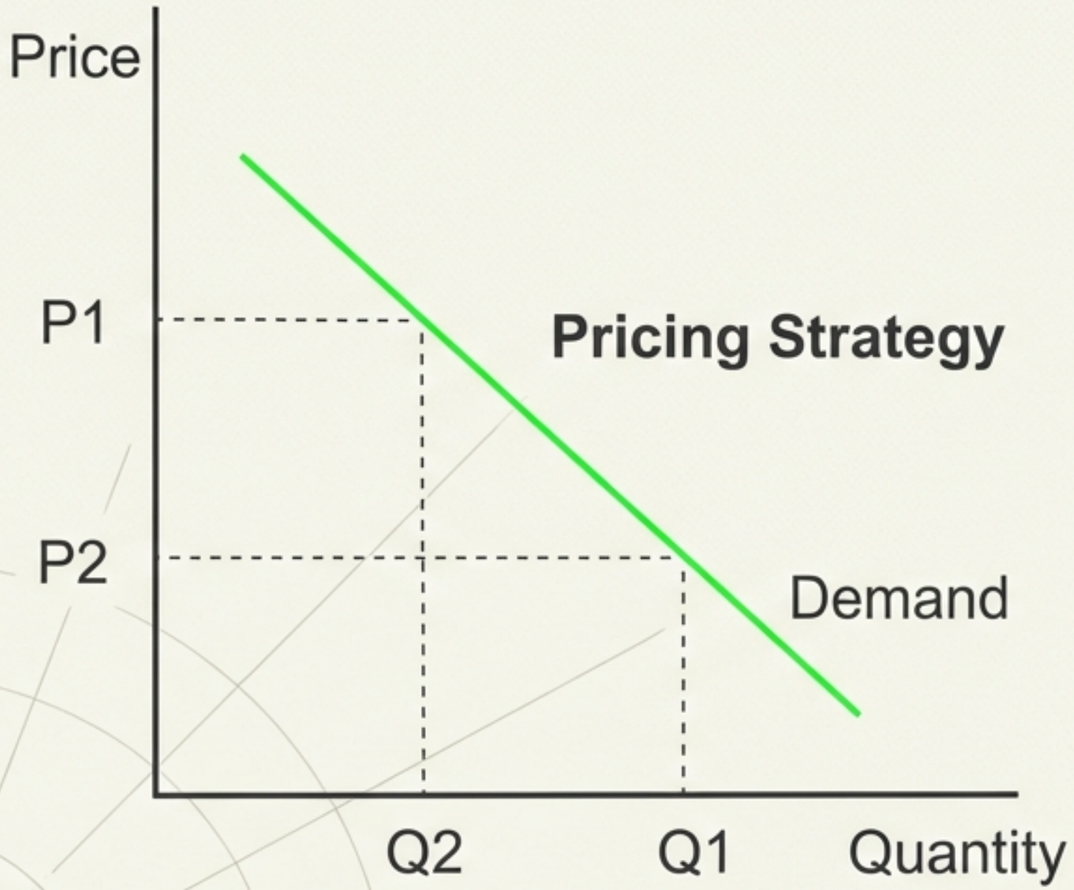


수요와 공급 곡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외부 충격이 시장 가격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Case: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이나 우버의 'Surge Pricing'도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됩니다.

NotebookLM

마케팅 지망생에게: ‘소비자의 마음을 숫자로 증명하다’



'감'으로 하는 마케팅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탄력성 (Elasticity): 가격을 10% 올리면 매출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소비자의 민감도를 ‘탄력성’으로 예측합니다.

효용 극대화: 소비자가 한정된 예산으로 왜 우리 제품을 선택하는지 심리학이 아닌 ‘경제학적 원리’로 분석합니다.

NotebookLM

회계 지망생에게: ‘장부 뒤의 진짜 가치를 보다’



회계는 비즈니스의 언어이지만,
해석은 경제학의 몫입니다.

- **경제적 이익 vs 회계적 이익:** 장부는 흑자여도, 기회비용을 따지면 적자일 수 있습니다.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입니다.
- **인센티브:** 회계 기준 변화에 따라 기업 행동이 왜 바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유인 구조를 읽어냅니다.

NotebookLM

재무/금융 지망생에게: '경제학의 가장 화려한 꽃'



재무관리(Finance)는 사실상 **'응용 미시경제학'**입니다.

리스크와 수익: 포트폴리오 이론, CAPM 등 재무의 핵심 이론은 경제학적 최적화 모델에서 탄생했습니다.

거시 연계: 금리와 환율 이해 없이 금융 시장을 논할 수 없습니다.

NotebookLM

취업 시장과 실무에서 증명되는 차이



글로벌 기업과 컨설팅 펌이
면접에서 묻습니다.

경제 신문을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경영 기법도
무용지물입니다.

경제학원론은 비즈니스 환경을
통찰하는 **‘시야(Insight)’**를
길러줍니다.

NotebookLM

경제학원론, 이런 분들은 꼭 수강하세요!

- ☑ 마케팅, 재무, 회계 등 전공 심화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싶은 분
- ☑ '감'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 분
- ☑ 기업을 둘러싼 거시 환경(환율, 금리)을 이해하고 싶은 분
- ☑ 3학년이 되어 전공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후회하고 싶지 않은 분

NotebookLM

경영학이라는 나무를 키우는 가장 단단한 토양



3학년 전공 심화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1학년 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4년 후 여러분의 '경영학적 깊이'를 결정합니다.

Action: 이번 학기, 경제학원론에서 여러분의 '항해'를 준비하세요.

NotebookLM



비즈니스의 언어는 회계지만,
비즈니스의 사고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원론 수강신청 안내 [Link/Details Placeholder]

NotebookLM